

###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⑧

## 묵은 정원, 리모델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번 호에는 정원이 휴면 상태로 무심해졌을 2월, 새롭게 정원을 리모델링 하는 구상안을 소개한다. 원래 누리고 살던 정원이나 베란다, 옥상 공간이 이제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묵은 정원이 되었을 때, 정원 리모델링을 꿈꾸고 실행해 보자는 의도의 제안이다.

작은 화분 하나 달랑 탁자 위에 둔 것이 만족스럽고,  
흠 만지는 일이 마냥 행복한 사람은  
그 자체로 정원을 품은 정원사인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은 겨울이다. 2월까지를 겨울이라 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봄의 포근한 햇살과 물오르는 들관, 초록과 색색의 꽃이 더욱 그리운 때다. 이제 봄이 되면 어느 식물들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냈는지 알수 있게 된다. 지난 가을, 구근을 미리 심어둔 정원은 봄을 맞아 당연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식물을 가꾸는 일은 이렇게 반려동물을 먹이고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 사랑과 애정으로 식물의 말을 읽어 내는 것이 정원사가 식물과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가정에서 실내식물을 키울 때, 물을 너무 자주 줘 식물이 죽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람끼리의 관계나 사람과 식물과의 관계 역시 적당한 관심과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것 역시 시간적 경험으로 터득하는 것 중 하나다.



#### ■ 정원 리모델링, 어떻게 계획할까?

누군가 “뭐 먹고 싶어?” 물으면 사람들은 먹어 본 음식 중에서 고른다. 아니면 2,3초 고민하다 “아무거나”하고 우스운 답을 해 버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원에서 살고 싶나?”고 물으면 역시 대답은 막연하거나 어디서 본 정원을 연상하는 정도에 그친다. 조건 없이 원하는 환타지를 담아 마음껏 정원을 구상하라 해도 본 것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본인이 정원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정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정원 리모델링의 첫걸음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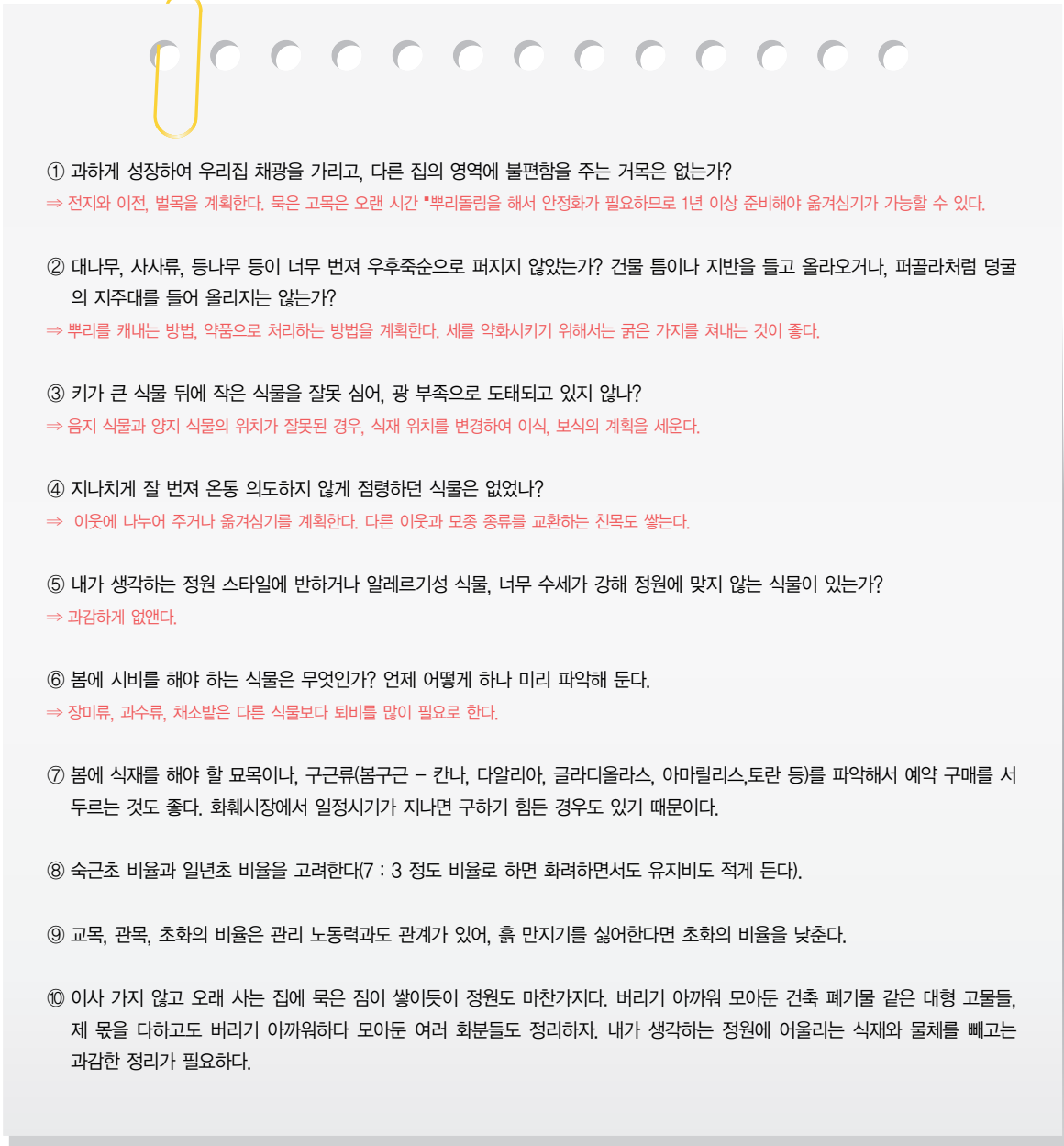
## 정원 리모델링 체크리스트

- ① 누구를 위한 정원인가?  
⇒ 가족 중 정원에 가장 애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주로 누가 관리할지 생각한다.
- ② 가족뿐 아니라, 손님이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가?
- ③ 정원에 꼭 필요한 설치물은 무엇일까?  
⇒ 가제보, 퍼골라, 정자, 아치, 온실, 게이트, 담, 오벨리스크, 주차 공간, 장독대, 데크, 오솔길, 도구창고, 거름박스, 벤치, 테이블세트, 바비큐시설, 화덕, 연못, 식용 약용의 텃밭, 분수, 놀이기구, 그네, 개집 곤충집, 조각품, 조명, 화분 등에서 직접 체크해 본다.
- ④ 어린 시절이나 가족의 추억 속 장소와 꽃나무가 있다면?
- ⑤ 좋아하는 가든 양식이나 스타일이 특별히 있다면?  
⇒ 한국식, 일본식, 중국식, 유럽식, 모던, 야생, 락가든 등에서 직접 체크해 본다.
- ⑥ 좋아하는 컬러는 무엇이며 어떤 대비를 좋아하는가?(파스텔톤의 부드러움 또는 강렬한 컬러 배색)
- ⑦ 좋아하는 나무와 꽃은 어떤 종류인가?
- ⑧ 정원을 구성하는 재료(돌, 나무, 철, 조형물 등)는 어떤 종류를 원하는가?  
⇒ 화단 경계 / 바닥과 보도의 재료 / 그늘막의 가제보의 재료 / 벽과 울타리의 재료
- ⑨ 내가 원하는 정원의 느낌과 이미지 행위는 무엇인가?  
⇒ 조용하고 차분함 / 화려하고 독특함 / 아기자기 재미있음 / 깔끔 단정함 / 중후함 / 로맨틱함 / 사색과 명상을 위한 공간 / 가족간 모임과 즐거움의 장소 / 손님과 파티를 위한 장소 / 혼자 책을 보고 휴식을 위한 공간 등
- ⑩ 인터넷이나 관련 책자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이미지에 근접한 것들을 스크랩한다.
- ⑪ 종이 위에 그려본다. 각 위치를 표시하고 행위를 생각해서 화살표로 동선을 만들면 당신이 곧 디자이너다.  
⇒ 현재 정원의 사진을 찍어 인쇄된 위에 유성펜으로 표시해도 된다. 그림 실력과 무관하게 네모 세모 원으로 그리고 글로 적어도 된다.
- ⑫ 여기까지 작업을 끝내면 가용금액과 현재 가능한 내용, 미래에 가능한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계획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만들어 가면 된다. 변경과 유지, 보수, 개선 뺄 것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디자이너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종합해 정원의 크기, 건물의 특성, 사회적·인문학적 환경을 분석하고 예산비용을 고려한다. 컬러와 재료, 질감, 형태와 함께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실현해 내는 것이 디자이너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 정원 과 오래 함께 할 주인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 수고로움은 전문성을 넘어 아름다움과 감동을 준다.

### ▪ 계획 안에서 내 정원 파악하기

공간 구성과 동선의 짜임새, 식재패턴 등 내가 원하는 정원과 지금의 정원에서 유지 보완할 것과 변경할 것을 체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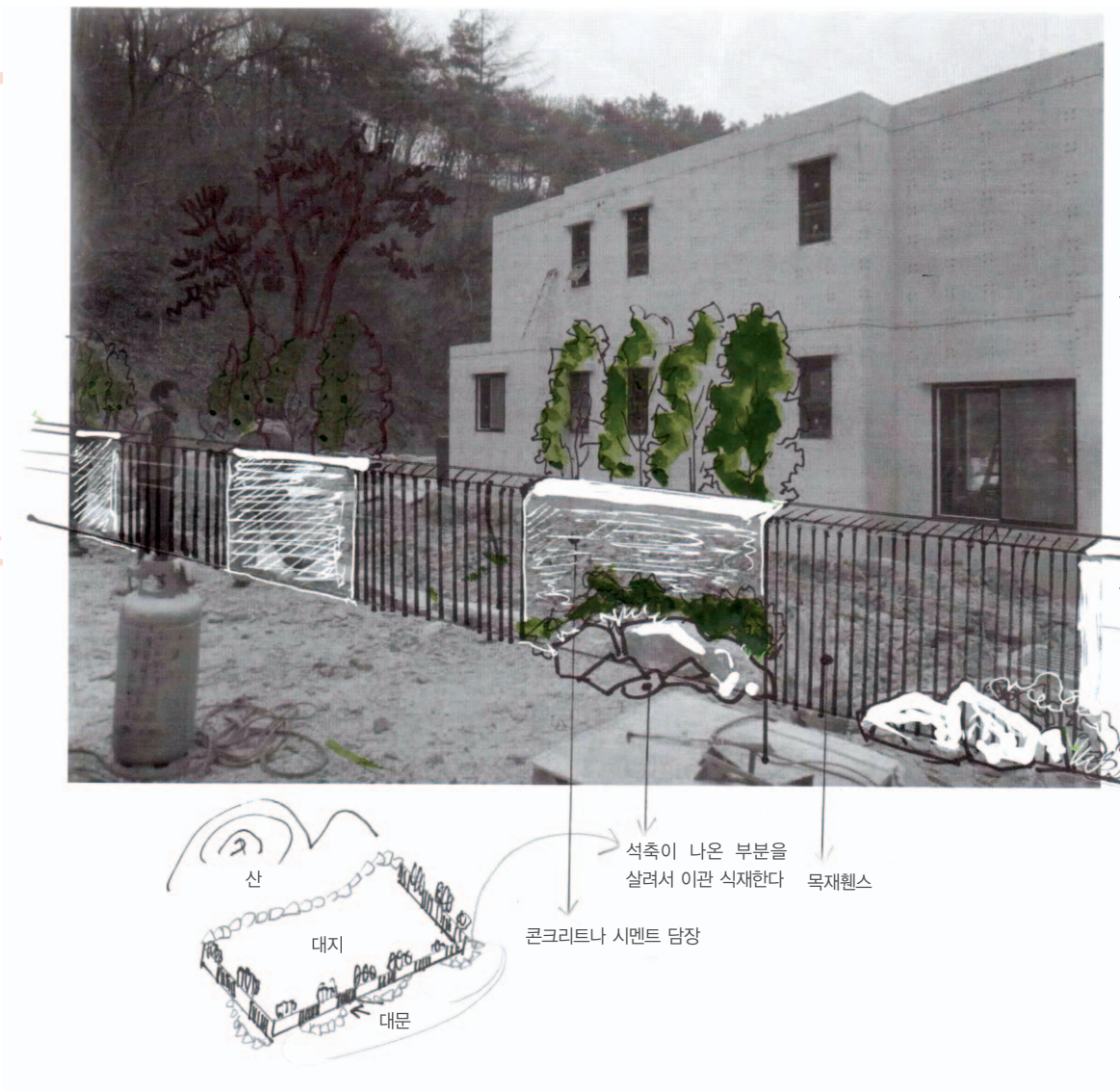


- ① 과하게 성장하여 우리집 채광을 가리고, 다른 집의 영역에 불편함을 주는 거목은 없는가?  
⇒ 전지와 이전, 발목을 계획한다. 목은 고목은 오랜 시간 \*뿌리돌림을 해서 안정화가 필요하므로 1년 이상 준비해야 옮겨심기가 가능할 수 있다.
- ② 대나무, 사사류, 등나무 등이 너무 번져 우후죽순으로 퍼지지 않았는가? 건물 틈이나 지반을 들고 올라오거나, 퍼골라처럼 덩굴의 지주대를 들어 올리지는 않는가?  
⇒ 뿌리를 캐내는 방법, 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굵은 가지를 쳐내는 것이 좋다.
- ③ 키가 큰 식물 뒤에 작은 식물을 잘못 심어, 광 부족으로 도태되고 있지 않나?  
⇒ 음지 식물과 양지 식물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식재 위치를 변경하여 이식, 보식의 계획을 세운다.
- ④ 지나치게 잘 번져 온통 의도하지 않게 점령하던 식물은 없었나?  
⇒ 이웃에 나누어 주거나 옮겨심기를 계획한다. 다른 이웃과 모종 종류를 교환하는 친목도 쌓는다.
- ⑤ 내가 생각하는 정원 스타일에 반하거나 알레르기성 식물, 너무 수세가 강해 정원에 맞지 않는 식물이 있는가?  
⇒ 과감하게 없앤다.
- ⑥ 봄에 시비를 해야 하는 식물은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하나 미리 파악해 둔다.  
⇒ 장미류, 과수류, 채소밭은 다른 식물보다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
- ⑦ 봄에 식재를 해야 할 묘목이나, 구근류(봄구근 - 칸나, 다알리아, 글라디올라스, 아마릴리스, 토란 등)를 파악해서 예약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화훼시장에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⑧ 숙근초 비율과 일년초 비율을 고려한다(7 : 3 정도 비율로 하면 화려하면서도 유지비도 적게 든다).
- ⑨ 교목, 관목, 초화의 비율은 관리 노동력과도 관계가 있어, 흠 만지기를 싫어한다면 초화의 비율을 낮춘다.
- ⑩ 이사 가지 않고 오래 사는 집에 묵은 짐이 쌓이듯이 정원도 마찬가지다.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건축 폐기물 같은 대형 고물들, 제 뉘를 다하고도 버리기 아까워하다 모아둔 여러 화분들도 정리하자. 내가 생각하는 정원에 어울리는 식재와 물체를 빼고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 뿌리돌림 큰 나무를 이식하고자 할 때, 옮겨심기 1-3년 전에 큰 뿌리를 잘라주어 잔뿌리를 발생시키는 조정 기술이다. 나무는 잔뿌리를 통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을수록 이식했을 때 살아날 확률이 높다. 속어로 '모찌코미'라고도 부른다.

#### TIP 이른 봄에 피는 꽃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지난 가을, 봄에 피는 구근류를 미리 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무스카리, 라넨큘러스, 알리움, 구근아이리스, 후리지아, 히아신스, 나리 등을 상토 넣은 화분에 심는다. 또 초화류 씨앗은 모판에 심어 온실이나 채광 좋은 따뜻한 실내에 두어 발아한 모종을 봄에 마당이나 정원에 이식하면 된다.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다 이름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다. 그러나 내 정원에서의 잡초란? 뿌리거나 심지 않아도 싹을 띄우는 식물, 즉 의도하지 않은 모든 식물이다. 이들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식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점령해 버린다. 원하는 꽃밭의 형태를 흐트러트리

는 주범은 과감히 제거한다.

정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지키는 것이다. 가꾸다 보면 즉흥적으로 사다가, 얻어다 심은 것들로 산만해지기 쉬운 것이 정원이다. 작은 규모일수록 욕심을 줄이고 처음 생각한 바를 잊지 말아야 한다. ▲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